

AI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다



박 경 록 소장
한국MIT전략연구소
mitc2002@hanmail.net

AI에 대해 바르게 알고, 전달하는게 중요하다

현재 닭고기 관련 외식시장 규모는 연간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독립 점포와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대략 4만개 이상의 치킨집이 있을 정도이다. 물론 단일 먹거리 아이템으로는 국내 최대 수준이다. AI 소식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곳 역시 치킨집이다.

사실 AI의 위험성이 과대포장 돼 있어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위해 치킨업계는 치킨외식산업협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유관기관들의 AI예방도 필요하지만 AI에 대한 공중파 방송사들의 선정적 보도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림부는 공중파 방송사를 대상으로 AI에 대한 선정적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닭고기 먹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계육협회, 치킨외식산업협회 등 닭고기 관련 단체에서는 "AI감염 닭고기가 유통될 수



지난 2003년 AI 발생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주)하림을 방문, 직접 닭고기를 사식했다.

도 없을 뿐 아니라 기름에 튀기거나 찐 닭고기 요리를 통한 인체 감염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AI 바이러스는 종(種)에 특이하기 때문에 (highly species-specific) 종간벽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감염되지 않는다. 또한 이 AI가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도 않는 만큼 국민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당국은 강조하고 있다.

1. AI에 얽힌 5가지 오해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이해 없이 막연한 두려움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이에 몇 가지 AI에 얽힌 오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1) 덜 튀긴 닭을 먹으면 AI 감염 확률이 높다?

아니다! AI는 치사율이 높아서 조류가 이 병에 감염되면 대부분 하루 이틀 내 사망한다. 감염된

닭이 유통돼 판매될 때까지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AI에 감염된 조류의 판매, 유통이 불가능하다. 또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장뿐 아니라 주변 3km 이내 모든 조류는 폐사시키고 시가로 보상하기 때문에 유통될 가능성이 없어 시중에 판매되는 닭, 오리고기를 통한 감염은 없다.

2) AI에 감염된 닭에서 나온 달걀을 만지기만 해도 감염될 위험이 있다?

아니다! AI에 감염된 닭은 대부분 산란 장애를 보인다. 산란능력 자체가 없어지게 돼 달걀을 낳지 못한다. 병든 닭을 맨손으로 직접 도살하는 과정에는 감염위험이 있지만 소비자들과는 상관없는 얘기다.

3) 사람이 감염됐을 때 예방이나 치료 방법이 전혀 없다?

아니다! 조류와 직접 접촉할 가능성을 피하면 사람에 대한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집에서 조류를 사육한다면 AI 발생 시기인 동절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 독감 인플루엔자를 치료하는 약제 중에 타미플루(경구복용)와 리렌자(흡입용)는 조류인플루엔자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주의할 점은 해당 약품들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상태에 복용 가능한 약이지 예방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4) 동남아시아 해외여행은 무조건 자제해야 한다?

아니다! 인체 간 감염사례는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아직까지 사람 간 전파력이 약해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더라도 감염되지 않는다. 실제 발생한 AI는 모두 감염 조류와 직접 접촉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들 지역을 방문한다고 해도 가금류를 키우는 농장이나 전문 시장을 피하고 개인위생 철칙을 잘 지킨다면 문제가 없다.

2. AI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섭씨 75℃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AI바이러스는 죽기 때문에 닭이나 오리를 충분히 익혀 먹는다면 AI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또한 AI가 발생한 지역의 가금류는 철저히 유통이 차단되는 만큼 이들 고기를 날로 먹는다고 해도 위험성이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AI바이러스는 사람에게는 잘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AI에 감염된 조류와 접촉하더라도 쉽게 감염되진 않는다.

하지만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사육한 양계업자나 도살처분 종사자들은 AI바이러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AI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특별한 방역관리와 조치를 받아야 한다. 특히 AI는 조류의 분비물을 직접 만지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최선의 예방책은 무엇보다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다.

AI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다

3. 관련 당국 홍보 부족

AI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섭씨 75°C 이상에서 5분 동안 끓일 경우 바이러스가 모두 죽어 감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AI에 관련해 나오는 언론 보도와 당국의 홍보 등이 닭이나 오리 뿐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감염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고병원성 부분에 집중 부각되고 있으며, 감염된 닭, 오리 등을 익혀 먹을 경우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는 내용에는 등한시 하는 등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관계당국의 대대적인 홍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고, 소비자 역시 AI 전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AI에 감염된 닭이나 오리도 익혀 먹으면 인체에는 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직 세계적으로 사람이 감염된 고기를 먹어서 걸린 사례는 보고 된 바 없고 AI 바이러스는 끓는 물에선 몇 초만에, 약 75°C 이상에서는 5분 동안만 열처리하면 쉽게 죽기 때문에 조리한 닭고기나 오리고기는 더욱 안전하다는 것이다.

AI가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은 병에 걸린 닭 등을 잡는 과정에서 떨어진 비늘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 감염되거나 조류의 배설물 등에 노출됐을 때가 대부분이므로 일반 국민들이 지나

朝鮮日報

닭·오리 익히면 안전한데... 한국인들만 과잉피로



한국 정부는 닭, 오리 등 조류에 대한 AI에 대한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AI에 대한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AI에 대한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닭, 오리 등 조류에 대한 AI에 대한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AI에 대한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AI에 대한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업계 "닭보다 먼저 죽게 생겼다"

조류독감 발생 이후 판매액 74% 급감
관련종사자 72명... 가족들 150명 생존 위협
태충터 걸려서 사서... 우리 정부는 뒷북만

조류독감 발생 이후 닭 오리고기 가격이 폭락하면서 관련 종사자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 AI에 대한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AI에 대한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AI에 대한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한국



일본



AI 발생에 따른 우리나라와 일본의 보도사례. 우리나라는 매리, 사체 등 혐오감 주는 자료를 사용하는 반면, 일본은 안전성, 예방우주의 사진을 사용한다.

치게 감염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전문가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아직까지 AI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양계업 종사자와 같이 닭, 오리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고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를 먹어서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간 대 인간을 통한 전염 케이스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AI는 75

℃ 이상에서 5분 동안만 열처리하면 쉽게 죽기 때문에 조리한 닭고기나 오리고기는 안전하다”며 “양계 농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대로 닭과 오리 등을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4. 닭고기 안심,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필요

소비자 인식의 전환이란 ‘AI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지우는 것과 ‘닭고기에 대한 오해’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틀로 사물을 먼저 규정해 놓고 나서야 사물을 보는 경향이 있다.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빨갱게 보인다.

축구 골키퍼는 페널티킥을 막을 때 한쪽은 포기하고 한쪽만을 향하고 있다.

안경을 쓴 사람에게 “왜 안경을 쓰느냐고 물으면” 안보이기 때문에 쓴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은 “잘 보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컵에 절반이 찬 맥주를 보고 “절반이나 남았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 잔 밖에 안 남았네”하는 사람도 있다.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오랜 세월을 걸쳐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져 온 ‘사고방식이나 고정관념’을

지금 당장 바꾸어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자신이 지탱하고 서있는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수정하거나 변화시키기보다 변화를 거부하거나 자기 자신의 틀과 사고구조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고, 인식의 차이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다시 불신과 반목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이다.

AI 발생 이후 닭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한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소비자 인식전환과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단체들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 중인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은 모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것이다.

‘AI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지우는 것과 ‘닭고기에 대한 오해’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의 전환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양계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힘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의 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